

# 성적 성향에 따른 도상적 접근과 의미구조 분석 - 형태 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xual propensity through the Iconology

김현정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Kim, Hyun-J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CBU

정성환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Chung, Sung-Whan

Dept. of Industrial Design, CBU

• Key words: sex, gender, icon, iconology, form

### 1. 서 론

인간의 역사에서 현상과 변화는 언제나 함께 한다. 즉, 인간과 사회, 사회와 성역할은 역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성(性)차이에 따른 성적 성향의 표현 및 묘사는 언어에 있어서 여성어와 남성어만큼이나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존재 조건들을 도외시키고는 논의할 수 없다. 또한 성적 성향을 여성과 남성의 존재 조건을 떠나서 의미있게 논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곧 남녀의 성적 성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의 개념은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적 탐구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연구는 성 역할 자체, 즉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성 역할과 현대적 역할 변화를 근간으로 한 역할의 성격과 원인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적 성향과 성역할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디자인의 형태적인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도상학적 분석을 통해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소비시장 세분화에 따른 상품기획에도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성 역할과 성(性)적 성향 표현의 도상적 접근

Kagan(1964)은 성역할 정체성(sex-role identity)이란 "개인이 자신을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라고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고 했다. 이렇게 성 역할 정체성은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정의된다. 즉, 사회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특성이나 태도 또는 흥미를 동일시하는 것이며, 한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가하는 것이다.(임정빈 외 1997).

성역할의 전통적 견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서로 다른 만큼 또한 심리적으로도 다르므로, 여러 가지 특성에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전형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보았다(Cook 1985). 따라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역할 행동으로부터의 이탈은 부적응을 초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으며(Kagan 1964; Kohlberg 1966; Mussen 1969), 이와 동시에 성역할의 이상형으로 여성은 여성적인 성역할 정체감만을 갖는 것으로 강조하였다(Cook 1985; 김선영 1987).

이러한 성(性)의 시대적 흐름은 현대적 성역할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문화적 산물에 관념적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계속된 변화를 보여왔으며 그 가치를 해석해 내는 작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문화의 이해, 즉 문화 구조의 계층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되어 준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흐름을 시각화하고 해석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

문화 전반의 관념적 가치는 곧 현상적 삶으로 나타나고 또한 현상적 삶을 통하여 관념적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접근은 그 상징적 가치를 해석하는 도상학적 접근으로 전개될 수 있다. 도상은 관념체계상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제작된 미술품이나 일정 형상에 관하여 언어와 종교적·역사적 관련을 바탕으로 그 상징적 가치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형태와 의미 사이가 도상적이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도상이라는 용어는 Peirce가 기호와 그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그가 나눈 세 가지 유형의 기호인 상징, 지표, 도상은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먼저, 상징은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관례화된 자의적인 기호를 말하며 상징 기호의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징은 관례적인 규칙을 통해서만이 해독 가능하다. 지표는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연상적이다. 즉 의미는 형태의 직접적인 수단이나 투명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황적 혹은 외부적인 연상을 통해서 형태로부터 회복 가능하다. 예컨대, "따뜻함"이라는 의미는 태양이라는 대상과 외부적인 연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형태는 지표적으로 일반화되어 "따뜻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는 확실히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현상에 대한 '사실'에 의해서 동기 부여되며 어느 정도는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Peirce가 인용하고 있는 지표의 예에는 풍향계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등이 있다. 언어 단위로서는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가 지표에 속한다. 도상은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이지 않고 동기 부여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기호를 말한다. 의미는 형태 그 자체로부터 회복 가능하며 이런 점에서 도상은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통 각기 다른 문화는 각기 다른 종류의 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상이 다소 관례화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상 관계에서는 어떤 문화든지 간에 형태로부터 의미를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상의 의미의 높은 회복성 때문에 그 문화 밖의 사람들조차도 관례화된 규칙 없이도 도상 기호를 해석할 수 있다.<sup>1)</sup>

여성과 남성의 성적 성향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기에 앞서 이러한 기호학적·도상적 고찰을 통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미(美)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습화되고 사회화된 성적 성향에 대한 정의와 시각화된 형상의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성적 특성 변화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

### 3. 여성성과 남성성의 형태와 의미구조

위 2장에서 설명한 성역할과 성적 성향을 분석해 놓은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형용사와 피험자의 반응에 따른 성격적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Williamsdhk Best(1982)의 형용사 목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남성형 긍정적인 단어와 남성형 부정적인 단어, 여성형 긍정적인 단어와 여성형 부정적인 단어가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여성적인'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적인'과 상관되는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에는 여성들이 '여성적인'이라고 자신을 묘사할 때 여성 긍정적인 특성을 묶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특성은 내포하지 않는 개념으로 표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다<sup>2)</sup> 즉, 여성적·남성적 형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의 개념은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 중 긍정적 특성이 전제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언어학과 인지심리학의 병행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뜻한다.

도상 기호는 그 의미가 조직되는 원리를 복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상은 영상적 도상(image icon)과 도형적 도상(diagrammatic icon)으로 나누어지는데, 도형적 도상은 다시 구조동형성과 동기부여성으로 나뉜다. 구조동형성은 형태와 의미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다는 경향성을 말하며, 동기부여성(motivation)은 언어 형태가 의미를 반영한다는 사실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구조동형성은 형태와 의미 사이의 부호관계(code-relation)에 초점을 두지만, 동기부여성은 추론과정(inferential process)에 더 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동형성과 동기부여성 중에서 전자는 후자에 대한 선행조건이다. 즉 논리적으로 볼 때, 형태 차이가 의미 차이를 반영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형태와 의미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도상 이론 접근은 이를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적 관점이 도출된다고 가정할 때 가설의 진위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 4. 함의 및 추후 연구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따라 또는 성적 성향에 따라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형태의 성적 특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용되는 도상적 접근의 신빙성있는 전개를 위해서는 도상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내포한 형태 요소를 구분하는 실험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연구 방법과 이론적 고찰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례분석을 위한 실험설계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신빙성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선희,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 선호 유형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1997
- 임정빈, 정혜정, "성역할과 여성", 학지사
- 조궁호, "문화와 인지-타인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서울: 한국 심리학회, 1995
- Barak, B. and B. Steg, "Sex-linked Trait Indexes Among Baby Boomers and Pre-Boomers" A Research Not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Richard J. Lutz, Ed. Prove, VT. 13, p. 204-209
- Ashmore, R. Sex, gender, and the individual. In L.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 Theory and research*(pp.488-526). NY: Guilford
- Bolinger, Dweight.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 Margaret Mead, "Male and Female", 1949
- Geert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Software of the Mind)", IRIC, 1991

1) 김동환, 도상성과 의미구조  
 2) 최효일, 한국 중년여성의 관계적 자아표상, 한국심리학회, Vol.12, No.1, 129-140, 1999